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시간적 거리 판단과 시간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 고 은[†]

신 현 정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조작하고 참가자들에게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감을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긍정적인 경우이거나 현재는 긍정적이지만 미래가 부정적인 경우에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추정하였다. 반면에,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부정적이거나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미래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먼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시간적 거리 판단은 미래의 상황보다 현재의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동일한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여 주관적 시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볼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시간표현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실험 2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특정 미래 시점을 빠르거나 가깝게 느끼는 주관적 시간을 ‘가용의 시간’이라는 용어로, 특정 미래 시점을 느리거나 멀게 느끼는 주관적 시간을 ‘감내의 시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다.

주제어 : 주관적 시간, 시간적 거리, 시간표현, 가용의 시간, 감내의 시간

* 본 논문은 교신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국연구재단의 BK21 플러스[고령사회 대비 웰에이징 행복심리디자인어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F18HR31D1802).

† 교신저자: 이고은(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심리학과.

연구 분야: 인지심리학

E-mail: forgive2020@naver.com

시간에 대한 이해 관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며 대부분의 언어구조도 이 구분을 기반으로 한다(Davies, 2013; Fraisse, 1982; Zimbardo & Boyd, 2008). 현재는 지금의 순간과 관련된 것이고, 지나가버린 과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예상하며, 예측하고 상상하는 방법으로 인지한다(Fraisse, 1984). 인간이 가진 시간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특히 ‘미래’의 개념은 매우 특별하다(Dahlen, 2013; Hammond, 2012).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 시점을 상상할 때 어떤 미래 사건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고 또 어떤 미래 사건은 더디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낀다. 가령 일주일 뒤에 있을 월급날과 카드대금 결제일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체감하기 십상이다. 즉, 월급날을 앞둔 일주일은 길고 더딘 반면, 카드대금 결제를 앞둔 일주일의 순식간에 오는 것처럼 느낀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시간인식은 객관적 시간(objective time)이 아닌 주관적 시간(subjective time)에 해당한다. 인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객관적 시간에 의존하며 살지만, 실상 경험하고 체감하는 시간은 주관적 시간인 것이다.

Liberman과 Trope(1998)은 미래의 시점을 객관적 시간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시간적 거리감(temporal distance)에 따른 차이로 설명한다.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시간적 거리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고 본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 시점을 가까운 미래로 인식할 때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시간상 먼 미래로 인식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으로 설명한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Trope & Liberman, 2010). 해석수준이론은 시간적 거리감이 미래 사건의 표상 방식을 변화시켜 선호도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Liberman & Förster, 2009; 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Trope & Liberman, 2010). 이 이론의 기본가정은 주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건일수록 그 사건은 상위수준에서 추상적으로 표상되고 주관적으로 멀지 않다고 느끼는 사건일수록 하위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표상된다. 해석수준이론을 Pham과 Taylor(1999)는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사건의 목표와 같은 추상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고, 사건이 발생할 시점이 비교적 가까워져야 비로소 사건의 세부특성이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시간이 동일한 미래 역시 결과에 따라 심리적 거리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주일 뒤’라는 동일한 미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은 가깝게 느끼지만 월급날은 먼 것처럼 느낀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시간은 빠를 것처럼 인식하고, 월급날까지 시간은 더딜 것처럼 인식한다. 이는, 원하는 미래는 멀리 있거나 느리게 다가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원하지 않는 미래는 별로 멀지 않거나 빠르게 다가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Zakay, 2015; Zakay & Diamant, 2011). 바꾸어 말하면, 미래 시점에 있을 일이 원치 않는 다소 부정적인 것이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고, 원하는 긍정

적인 것일 경우에는 막연히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으로 느낀다.

인간이 미래를 인식하는 방법은 상상과 예측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은 상상하는 미래 상황에만 의존하여 예측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 관한 예측은 반드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Davies, 2013). 예컨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희망하는 미래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미래일 것이고, 빠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미래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미래에 해당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영향을 받으며 현재의 상황과 미래 상황은 그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이고은, 신현정, 2018).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고은과 신현정(2018)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손실과 이득의 상황으로 조작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손실을 경험하는 상황에서의 추정시간은 이득 상황에서의 추정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이고은, 신현정, 2018).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는 달리 더 열악하거나 혹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뿐더러 미래 시점을 더 가깝게 느낀다는 Bilgin과 LeBoeuf(2010)의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결국 손실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득과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 비해 더 크고 현저하게 체감하는데, 이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가까이 있거나 더 근접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한다(Tversky & Kahneman, 1991).

주관적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적 거리감은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에서 모두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월급을 받는 날이 너무 멀리 있다’거나 ‘월급날이 오지 않는다’는 월급을 받는 미래 시간보다 현재가 곤혹스럽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시간에 대한 주관적 표현은 사람들이 주관적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를 정확히 반영한다. 시간에 대한 표현은 실체가 없는 시간의 존재를 공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다(Zakay, 1993). 따라서 시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고찰할 수 있다. 인간이 체감하는 주관적 시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 달력이 지칭하는 숫자의 상징과는 다르게 가용한 어휘로 표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빠르다’거나 ‘가깝다’, ‘멀다’와 같은 간단한 묘사만으로도 주관적 시간에 미치는 정서나 인지적인 영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고은과 신현정(2018)의 연구에서는 손실과 이익에 따른 시간적 거리감의 차이를 측정하였으나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인다. 인간이 경험하는 주관적 시간은 다양한 영향의 결과이기 때문에 영향의 요인을 들어 주관적 시간을 설명하려면 장황해지기 십상이고 이해하기 또한 힘들어진다. 특정 미래 시점까지 주관적 시간을 나타내는 직관적이고도 적절한 용어를 명명할 수 있었다면 각각의 다른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고은과 신현정(2018)의 연구를 확장하여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을 예측하거나 상상할 때에 드는 느낌을 서술하게 하여 주관적 시간에 대한 시간표현을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전제는 미래의 시간적 거리감 추정에 미

치는 영향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는 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며, 시간표현 연구를 통하여 시간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은 물론, 시간지각의 기저를 이루는 인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고은과 신현정(2018)의 연구에서 밝히는 시간적 거리감을 멀고 가깝게 추정하는 조건은 본 연구에서 확장한 연구를 통해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관적 시간을 적절한 용어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험 1: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시간적 거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험 1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를 추정하는 데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따라 주관적 시간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조작하고 그 미래 시점까지 주관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이고은과 신현정(2018)의 연구에서 제작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방 법

실험참가자

부산지역 P대학교에서 심리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86명(여성 180명, 남성 106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5세(표준편차 1.99)이었다. 참가자들을 현재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과 미래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2 × 2 요인설계의 네 조건(긍정-긍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부정-부정)에 무선할당하였다(표 1 참조).

실험처치 및 절차

다음과 같이 기숙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재학 중인 학교의 두 기숙사 건물이 편의 조건에서 동일한 비용임을 제외한 나머지의 조건들은 크게 차이가 나도록 구성하였으며, 기숙사 배정은 지금부터 한 달을 살아야하는 임시 배정과 한 달 뒤에 1년간 고정적으로 살게 되는 상황으로 현재와 미래를 설정하였다. 두 건물의 차이가 곧 부정적인 현재이거나

긍정적인 현재, 부정적인 미래이거나 긍정적인 미래 상황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각각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예컨대, 표 1의 ‘조건 1(긍정적 현재-긍정적 미래)’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기숙사 건물이 A동과 B동 두 군데가 있다. 두 기숙사 건물은 차이가 있다. A동은 1인실에 무선인터넷 사용이 자유롭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 반면에 B동은 4인실인데다 무선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며 꽤 오래된 건물이다. 현재 두 기숙사 건물 일부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관계로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기숙사 생활을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한 달 간은 임시로 배정받은 기숙사에서 생활해야하고, 한 달 뒤에는 비로소 1년간 지내게 될 기숙사로 옮긴다. 당신이 1년간 고정적으로 생활하게 될 기숙사 건물은 제비뽑기로 A동이 당첨되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간 지내야하는 임시 기숙사 건물도 A동이다. 임시로 지내야하는 기숙사는 무작위로 배정받았다. 당신은 이제 지금부터 한 달간 A동 기숙사에서, 한 달 뒤부터 1년간도 A동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조건은 현재와 미래가 각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이다.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임시 배정 기숙사가 좋은 건물인 상황(조건 1, 조건 2)이며, 부정적인 상황은 임시 배정 기숙사가 좋지 않은 건물인 상황(조건 3, 조건 4)이다. 미래가 긍정적인 상황은 한 달 뒤부터 살게 될 고정 기숙사가 좋은 건물인 상황(조건 1, 조건 3)이며, 미래가 부정적인 상황은 한 달 뒤부터 살게 될 고정 기숙사가 좋지 않은 건물인 상황(조건 2, 조건 4)이다. 각 조건 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지금부터 한 달의 기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리커트 7점 척도(1점: 매우 짧다, 4점: 1개월, 7점: 매우 길다)로 평가하였다. 한 달의 기간을 짧게 느낀다는 것은 특정 미래 시점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으며, 한 달을 길게 느낀다는 것은 특정 미래 시점이 멀리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다.

〈표 1〉 현재와 미래 상황의 긍정성과 부정성 조건에 따른 구성 및 참가자 수

		미래 상황	
		긍정적	부정적
현재 상황	긍정적	조건 1 71명(남성 34)	조건 2 72명(남성 26)
	부정적	조건 3 71명(남성 26)	조건 4 72명(남성 20)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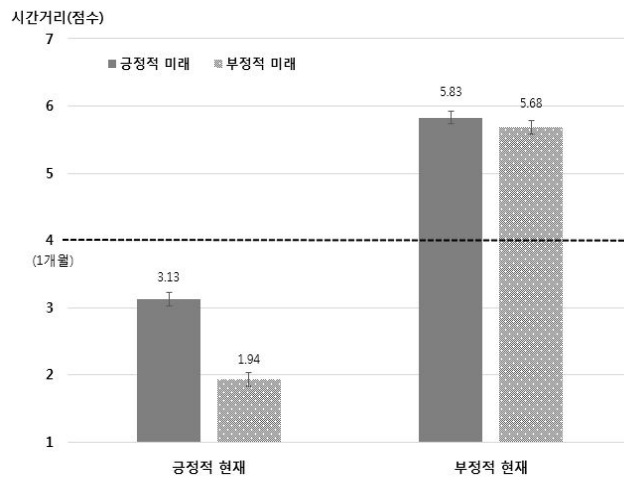
특정 미래 시점까지 거리를 길거나 짧게, 혹은 느리거나 빠르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끼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가 긍정적이고 미래가 부정적인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미래가 긍정적인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장 멀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1 참조).

우선, 현재와 미래 상황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른 각 조건(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을 검정값 4(참조점, 1 개월)에 해당하는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가 긍정적이고 미래가 부정적인 조건 2($t(71) = -25.29, p < .001, d = .95$)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긍정적인 조건 1($t(70) = -6.22, p < .001, d = .59$)은 기준점에 해당하는 한 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깝다고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와 미래 모두 부정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조건 4($t(72) = 14.83, p < .001, d = .86$)과 현재는 부정적이거나 미래는 긍정적인 상황인 조건

〈표 2〉 현재와 미래 상황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른 평균 시간적 거리 평가

		미래상황	
		긍정적	부정적
현재 상황	긍정적	3.13(1.18)	1.94(0.69)
	부정적	5.83(0.91)	5.68(0.96)

주. 리커트 7점 척도(1점: 매우 가깝다, 7점: 매우 멀다)의 평균점수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



(그림 1) 현재와 미래 상황에 따른 주관적 시간의 평가

$3t(72) = 14.93, p < .001, d = .86$]은 기준점 한 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멀다고 추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과 미래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F(1, 282) = 819.04, p < .001, \eta^2 = .74$]과 미래 상
황의 주효과[$F(1, 282) = 35.07, p < .001, \eta^2 = .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상황에 따라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가 달라질 수 있고, 미래 상황에 따라서도
시간적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편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다[$F(1,$
 $282) = 21.03, p < .001, \eta^2 = .07$]. 상호작용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
과 미래 상황으로 기준을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현재 상황에 따라 미래 상황의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2(긍정-부정), 그리고
조건 3(부정-긍정)과 조건 4(부정-부정)에서의 시간적 거리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2(긍정-부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t(141) = 7.32, p < .001, d$
 $= .52$]했지만, 조건 3(부정-긍정)과 조건 4(부정-부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2(긍정-부정)는 현재가 긍정적 상황이라는 점이 동일
하고, 조건 3(부정-긍정)과 조건 4(부정-부정)는 현재가 부정적 상황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면 다가올 미래의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미
래가 기준 시점에 비해 멀리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조건 3(부정-긍정)과 조건 4(부정-부
정)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시간적 거리 평가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
래 상황이 어떠한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연구 결과는 현재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미래 상황의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반면에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2(긍정-부정)는 현재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긍정적인 미래는 막연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르게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에 처
해있으면 미래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가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조건 1: 긍정-긍
정). 또한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미래의 상황이 부정적이면 다가올 미래는 빠르게 오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평가하였다(조건 2: 긍정-부정). 긍정적인 미래 상황, 즉 우리가 바
라고 희망하는 미래 상황은 항상 멀게만 평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긍정적인 미래 또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래 상황에 따라 현재 상황의 차이가 시간적 거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3(부정-긍정), 그리고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정-부정)에서의 시간
적 거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3(부정-긍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40) = -15.27, p < .001, d = .79$]가 있었으며,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정-부정) 간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142) = -26.79, p < .001, d = .91$]. 조건 1(긍정
-긍정)과 조건 3(부정-긍정)은 미래가 긍정적이라는 점이 동일하고,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

정-부정)는 미래가 부정적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부정적인 미래는 빠르게 오거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현재 상황도 미래 상황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면 미래 시점을 멀리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정-부정)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반면에 바라고 희망하는 긍정적인 미래는 기준이 되는 미래 시점에 비하여 막연히 멀게만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현재 상황 역시 미래 상황처럼 긍정적이면 기준이 되는 미래 시점에 비하여 가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 평가는 미래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3(부정-긍정) 그리고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정-부정)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상황이 미래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1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상황이 미래 시간적 거리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건 간의 시간적 거리 평가 차이는 부정적인 상황, 즉 현재나 미래의 긍정성보다 현재나 미래의 부정성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평가는 미래의 영향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상황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미래 상황이 어떠한 관계없이 다가올 미래 시점을 기준이 되는 미래 시점에 비하여 길게 느낀다.

실험 2: 시간적 거리 판단에 따른 주관적 시간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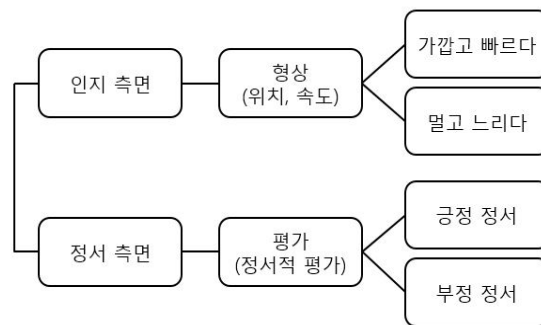
실험 1에서는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를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실험 2에서는 주관적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며 상황에 따라 표현방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인지와 정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객관적 시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상징화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주관적 시간은 정서와 인지적 경험을 반영하는 수식어들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간 흐름에 대한 언어 표현은 사람들이 주관적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영한다.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는 심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시간 흐름에 대한 느낌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빠르다’와 ‘느리다’ 혹은 ‘길다’와 ‘짧다’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한 인지적 표현이 가능하며, ‘아쉽다’와 ‘기쁘다’ 혹은 ‘지루하다’와 ‘막막하다’ 같이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한 정서적 표현도 가능하다.

실험 2에서는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의 설명에 근거하여 인지와 정서의 두 측면을 기준으로 미래 시간에 대한 표현들을 분류해보려고 하였다. 구

체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라 미래 시간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시간적 거리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는 심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시간지각에 따른 인지적 측면과 정서지각에 따른 정서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시간을 빠르거나 느리게 혹은 짧거나 길게 판단하는 경우를 인지적 측면이라 하고, 시간의 경험이 유쾌하거나 불쾌한 경우를 정서적 측면으로 분류한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주관적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를 분류하기 위하여 방영심(2011)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체계를 인용하였다. 방영심(2011)의 분류에 따르면, 시간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형상 형용사(크기, 위치, 속도, 빈도)와 평가 형용사(정서적 평가)로 분류될 수 있다. ‘빠르다’, ‘느리다’, ‘멀다’, ‘가깝다’ 등과 같은 주관적 시간에 대한 표현은 형상 형용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상 형용사는 주관적 시간의 인지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즐겁다’, ‘지루하다’ 등과 같은 주관적 시간표현은 평가 형용사에 해당하고, 평가 형용사는 주관적 시간의 정서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의 심리적 시간에 대한 정서, 인지적 측면과 방영심(2011)의 형용사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 ‘형상 형용사’와 ‘평가 형용사’를 중심으로 주관적 시간표현을 정리한 것이 (그림 2)이다. 실험 1의 결과에 따르면, 미래 시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는 현재와 미래 상황이 모두 부정적이거나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미래가 긍정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미래가 가깝거나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는 현재와 미래 상황이 모두 긍정적이거나 현재는 긍정적이지만 미래가 부정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시간을 표현하는 인지와 정서 측면은 시간적 거리 판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며, 주관적 시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 주관적 시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주관적 시간에 대한 표현 분류 기준

방 법

실험참가자

부산지역 교사대상 직무연수 강의를 수강하는 성인 남녀 40명(남 13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7세(표준편차 3.2)이었다. 참가자들을 실험 1과 동일한 네 조건(긍정-긍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부정-부정) 각각에 10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실험처치 및 절차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조건(긍정-긍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부정-부정)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다만 실험 2에서는 시간적 거리를 리커트 7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건에 해당하는 시간을 경험할 때 어떠한 느낌을 받는지, 경험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다섯 문장 내외로 서술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수집된 문장의 내용에서 이질적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질문지를 받고 서술하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과 및 논의

40명의 참가자들이 시간에 대한 느낌을 서술한 표현은 총 198개였고, 이 표현들 중 비문은 없었다. 각 조건별로 수집된 표현은 조건 1(긍정-긍정) 48개, 조건 2(긍정-부정) 51개, 조건 3(부정-긍정) 50개, 그리고 조건 4(부정-부정) 49개이었다. 네 조건의 주관적 시간표현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적 시간표현을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의 인지와 정서적 분류와 방영심의 형용사 체계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현재가 긍정적인 두 조건(조건 1, 조건 2)에서는 ‘가깝다’, ‘빠르다’, ‘잘 간다’와 같은 표현이 있는 반면에 현재가 부정적인 두 조건(조건 3, 조건 4)에서는 ‘멀다’, ‘느리다’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적 거리추정에 따라 인지적 측면의 표현, 즉 시간에 대한 표현은 대조적이다. 또한 주관적 시간의 정서적 표현은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가 시간 판단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에 앞서 네 가지 조건의 정서적 측면(평가)에 해당하는 156개의 표현(조건 1 - 48개, 조건 2 - 51개, 조건 3 - 50개, 조건 4 - 49개)이 긍정적 정서 평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정적 정

이고는·신현정 /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시간적 거리 판단과 시간표현에 미치는 영향

〈표 3〉 주관적 시간표현의 인지·정서 체계와 시간적 거리 판단에 따른 표현 분류
(괄호 안은 표현의 개수임.)

		가용의 시간		감내의 시간	
		<조건 1> 긍정적 현재- 긍정적 미래 총 48개	<조건 2> 긍정적 현재- 부정적 미래 총 51개	<조건 3> 부정적 현재- 긍정적 미래 총 50개	<조건 4> 부정적 현재- 부정적 미래 총 49개
인지 측면	형상	빠르다(4) 잘 간다(3) 가깝게 느껴진다(1) 잘 갈 것이다(1)	짧다(4) 무척 가깝다(3) 짧은 꿈같다(1) 빠르다(4) 너무 잘 간다(1)	시간이 안 간다(4) 가다가 멈췄다(1) 길다(4) 멀다(2) 느리다(1)	길다(4) 멀다(1) 느리다(2) 빠르지 않다(1)
		9개	13개	12개	8개
정서 측면	평가	좋다(14) 기쁘다(3) 활용한다(2) 마음대로 한다(2) 안심한다(2) 기대된다(2) 편하다(2) 만끽한다(1) 자유롭다(1) 많은 것들을 한다(1) 다행이다(1) 설렌다(1) 아쉽다(1) 여유롭다(1) 활기차다(1) 새롭다(1) 흥미롭다(1) 감사하다(1) 좋은 티를 안 낸다(1)	활용한다(5) 즐긴다(5) 혜택을 누린다(4) 아쉽다(4) 노력한다(3) 만끽한다(2) 늦추고 싶다(2) 좋다가 말았다(2) 아깝다(2) 위로한다(2) 마음을 비운다(2) 즐겁다(1) 안타깝다(1) 찝찝하다(1) 걱정된다(1) 빨라서 싫다(1)	기대한다(4) 답답하다(3) 싫다(3) 참기 어렵다(2) 극복한다(2) 노력한다(2) 지루하다(2) 짜증스럽다(2) 막막하다(2) 불편하다(2) 걱정된다(2) 참아야한다(2) 다행이다(2) 단련한다(1) 견딜만하다(1) 지겹다(1) 끔찍하다(1) 견뎌야한다(1) 버텨야한다(1) 미래를 좋게 해석한다(1) 운이 없다(1)	지겹다(5) 노력한다(4) 억울하다(4) 불만스럽다(3) 짜증난다(3) 애쓴다(2) 손해 본다(2) 기분 나쁘다(2) 부당하다(2) 참기 어렵다(2) 희망이 없다(2) 마음을 비운다(2) 실망스럽다(1) 힘들다(1) 가혹하다(1) 막막하다(1) 힘겹다(1) 운이 나쁘다(1) 안타깝다(1) 조심한다(1)
		39개	38개	38개	41개

주. 표현의 수는 198문장이지만, 동일한 표현은 한번만 제시하고 ‘빠르다’ 나 ‘엄청 빠르다’ 같은 표현은 동일한 표현으로 묶어 제시하였으며 또한 긴 표현은 짧고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 4〉 주관적 시간의 정서 측면 평가와 조건에 따른 관찰빈도(기대빈도)

	정서적 측면		전체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조건 1> 긍정적 현재 - 긍정적 미래	62(39.5)	16(38.5)	78
<조건 2> 긍정적 현재 - 부정적 미래	79.5%	20.5%	
<조건 3> 부정적 현재 - 긍정적 미래	17(39.5)	61(38.5)	78
<조건 4> 부정적 현재 - 부정적 미래	21.8%	78.2%	
전체	79	77	156(100%)

주. 괄호 안은 기대빈도임.

서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다섯 명의 심리학 박사수료생이 사전 분류 평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다섯 명의 평정자 중 4명(80%) 이상이 일치하는 구분(긍정 또는 부정)에 따라 정서 측면(평가)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리하였다. 예컨대, ‘시간을 활용하다’, ‘누리다’, ‘만끽하다’, ‘견딜만하다’ 등은 긍정적인 평가에 해당하였고, 표현은 총 79개였다. 반면에 ‘지루하다’, ‘아쉽다’, ‘버티다’ 등은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하였으며 총 77개였다. 주관적 시간의 정서 측면의 평가와 관찰빈도(기대빈도) 유관표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빈도분석의 결과, 시간적 거리 추정에 따른 조건과 정서 측면(평가)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X^2(1) = 51.93, p < .001, \phi = .58$). 현재가 긍정적인 두 조건에서는 시간에 대하여 ‘빠르다’, ‘짧다’, ‘가깝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형상 표현뿐 아니라, ‘활용하다’, ‘즐기다’, ‘만끽하다’, ‘기쁘다’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 측면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해 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용하다’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는 드문 표현이며 인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단순한 주관적 판단을 넘어서 능동적인 태도와 미래지향적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다. 반면에 현재가 부정적인 두 조건에 대해서는 ‘멀다’, ‘길다’, ‘느리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형상 표현뿐만 아니라 ‘견디다’, ‘버티다’, ‘지루하다’, ‘짜증나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측면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해 주관적 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디다’와 ‘버티다’와 같은 표현은 현재가 긍정적인 조건의 시간에 나타난 ‘활용하다’만큼이나 드문 표현이다. 주관적 시간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정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 상황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느끼며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하는 반면에 미래 상황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른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시점까지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 않기를 바라거나 비교적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험 2에서 ‘버티다’ ‘견디다’로 시간에 따른 마음을 표현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관적 시간을 ‘감내의 시간(time of perseverance)’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활용하다’ ‘만끽하다’로 표현해낸 주관적 시간은 ‘가용의 시간(time of availability)’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가용의 시간은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반면에 감내의 시간은 다가오는 미래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통합하면, 현재의 상황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래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 모두 ‘가용의 시간’에 해당한다. 반면에 현재가 부정적인 상황이면 미래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 모두 ‘감내의 시간’에 해당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려는 것이었다. 실험 1에서는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현재와 미래 상황의 경험이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1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조작하여 주관적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에 따라 시간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 시점을 긍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상황으로 조작하고 그 미래 시점까지 주관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현재가 긍정적이지만 미래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미래를 기준이 되는 시점에 비해 가깝게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부정적일 때에는 미래를 기준이 되는 시점에 비하여 느리게 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현재가 부정적이지만 미래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래 시점을 느리게 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래를 기준이 되는 시점에 비해 빠르게 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와 미래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서의 주관적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미래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 평가는 미래 상황보다 현재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관적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 1의 결과를 정리하면, 미래보다 현재가 더 긍정적이거나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긍정적일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판단한다. 반면에 미래가 현재의 상황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부정적일 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주관적 시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주관적 시간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실험 1의 결과에서처럼 미래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시간이 ‘느리다’와 ‘멀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표현과 ‘지겹다’, ‘힘겹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측면의 표현이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디며 노력해야하는 시간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감내의 시간’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래에 비하여 현재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빠르다’, ‘금방이다’, ‘짧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표현과 ‘즐겁다’, ‘기쁘다’, ‘설레다’ 같은 긍정적인 정서 측면의 표현이 많았다.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주관적 시간을 ‘가용의 시간’이라 명명할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할 수 있는 일을 해 본다’, ‘누리다’, ‘만끽하다’ 등의 표현을 통하여 현재에 비해 부정적이라고 예측되는 미래 시점까지 시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무료하고 지루하여 참고 견뎌야 하는 때를 겪는 소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감내의 시간’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때, 마치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가용의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대하는 미래가 멀리 있고, 기피하는 미래는 가깝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미래 시간의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미래 상황보다 현재 상황의 상태가 미래 시간의 추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한 상상이라고 한 Davies(2013)의 제안에 더하여 인간에게 미래는 과거 기억과 학습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미래는 항상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Dahlen(2013)과 Hammond(2012)의 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상황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주관적 시간은 설명하려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내포할 수도 있고, 지정한 시간 단위나 맥락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 시간에 관한 많은 설명은 연구에서 제안하는 ‘감내의 시간’ 혹은 ‘가용의 시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겠으나 제한점은 많다. 추후 시간지각에 관한 연구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용어들이 활용된다면 상당부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나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다가오는 특정 미래 시간을 추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시간의 지각과 판단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유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특정 미래 시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도 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미래 시점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시점인가 혹은 먼 시점인가에 따라서도 시간 지각과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본 시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외의 가능한 요인들을 추후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인간이 지각하는 미래 시간에 관한 이해와 한계에 더 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방영심 (2011). 근대국어 형용사 연구-어휘 체계와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고은, 신현정 (2018). 손실과 이익 경험이 주관적 시간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1), 105-125.
- Bilgin, B., & LeBoeuf, R. A. (2010). Looming losses in future time percep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7(3), 520-530.
- Dahlen, M. (2013). **넥스트피아 미래에 중독된 사람들**[Nextopia]. (이은주 역). 서울: 미래의 창. (원전은 2009년에 출판).
- Davies, P. (2013). The Ultimate Paradox: A Question of Time.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 Droit-Volet, S., & Gil, S. (2009). The time-emotion paradox.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364(1525), 1943-1953.
- Droit-Volet, S., & Meck, W. H. (2007). How emotions colour our perception of tim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12), 504-513.
- Fraisse, P. (1982). Rhythm and tempo. *The Psychology of Music*, 1, 149-180.
- Fraisse, P. (1984). Perception and estimation of tim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1), 1-37.
- Hammond, C. (2012). *Time Warped*. London, UK: Canongate Books.
- Liberman, N., & Förster, J. (2009).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tance on perceptual level of construal. *Cognitive science*, 33(7), 1330-1341.
- Liberman, N., & Trope, Y. (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18.
- Pham, L. B., & Taylor, S. E. (1999). From thought to action: Effects of process-versus outcome-based mental simulations on perform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2), 250-260.
- Taylor, S. (2007). *Making Time: Why Time Seems to Pass at Different Speeds and How to Control it*. London, UK: Icon Books.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Tversky, A., & Kahneman, D. (1991). Loss aversion in riskless choice: A reference-dependent mode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4), 1039-1061.
- Zakay, D. (1993). Time estimation methods-do they influence prospective duration estimates?. *Perception*,

22(1), 91-101.

Zakay, D. (2015). The temporal-relevance temporal-uncertainty model of prospective duration judgmen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38, 182-190.

Zakay, D., & Diamant, I. (2011). THE ROLE OF ATTENTIONAL FUNCTIONS IN PROSPECTIVE TIMING. *Proceedings of Fechner Day*, 27(1), 143-146.

Zimbardo, P. G., & Boyd, J. N. (2008). *The Time Paradox*. New York: Free Press, Simon & Schuster.

1차 원고 접수: 2018. 07. 23
1차 심사 완료: 2018. 09. 13
2차 원고 접수: 2018. 10. 02
2차 심사 완료: 2018. 10. 26
3차 원고 접수: 2018. 11. 29
3차 심사 완료: 2018. 11. 30
최종 게재 확정: 2018. 11. 30

(Abstract)

The Effects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of Present and Future on Temporal distance judgment and Time expression

GoEun Lee

HyunJung Sh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resent and future situation on the temporal distance estimation to the future. The effect of present and future situation on time expression was verified. In Experiment 1,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sitivity/negativity situation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on the judgment of subjective the distance to a certain future t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the present is positive and the future is negative, the future looks closer than the objective temporal distance and comes faster, When the present is negative and the future is positive, the future looks farther and comes slower. On the other hand, wh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re both negative, the future looks coming slower. And wh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re both positive, the future is expected to come faster. In Experiment 2, the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of subjective time through time expressions. It can be said to be 'the time of perseverance' in the sense of time for effo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present is positive compared to the future, the time seems go fast and we generally prefer to use cognitive expressions such as 'fast' and emotional expressions such as 'near' and 'pleasant' and 'flutter'. It is 'the time of availability', which means the time to enjoy and utilize.

Key words : subjective time, temporal distance, time expression, time of availability, time of perseverance